

# 조나단 그리어(Jonathan Greer) 박사, 고고학과 구약성서, 세션 4, 히브리 왕국

© 2024 조나단 그리어(Jonathan Gree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고고학과 구약성서에 관해 강의하는 조나단 그리어 박사(Dr. Jonathan Greer)입니다. 세션 4, 히브리 왕국입니다.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제 히브리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시작하여 초기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청소할 것입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이해되는 부족 유목민의 존재에서 군주제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사람들이 이것을 개념화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논쟁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념비, 웅장한 구조, 정교한 계층 구조로 특징지어지는 일종의 중세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군주제를 생각한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군주제는 일부 사회 제도와 훨씬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목민을 실천하는 유사한 사회 내에서 운영되는 구조.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겠지만, 초기 군주제와 간략하게 성경적 묘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사 시대에서 벗어나는 전환기에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묘사에도 왕권에 대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위대해질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게 좋은 생각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 블레셋의 위협이 촉매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 원해요. 그런데 이 동기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에 맞서 군사 전선을 펼치거나 방어하기 위해 이 씨족 집단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러한 초기 이야기에서

북쪽의 부족 집단과 남쪽의 부족 집단 사이에 긴장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흥망성쇠 이후에 우리는 다윗을 목자, 음악가, 용병, 전사, 왕, 간음자, 살인자이자 기름부음받은 자 메시아로 매우 복잡하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철기 I의 끝과 철기 시대 II의 시작 사이의 전환기의 문화적 맥락에서 다시 공명하는 그에 대한 다양한 전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고학으로 눈을 돌릴 때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어떤 비문에도 고대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Meren Ptah Stele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나 첫 번째 언급을 언급했지만 9세기까지는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11세기와 10세기에는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또는 우리가 성경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근접한 참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집트 참고 자료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세 번째 중간 시기에 리비아 왕조의 샤생크가 수행한 캠페인입니다. 그는 이 장소의 목록을 남겼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카르나크 성벽인 위대한 카르나크 신전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자신이 정복한 지명을 제시하는데, 그 중 많은 지명은 성서의 도시와 연관되어 있어 그의 여행 일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히 이 여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이는 그가 중앙 산간 지방에 침입했고,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도 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남쪽 왕국의 성서 이야기에 나오는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북쪽 왕국의 여로보암 사이의 전환기에 바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르호보암 통치 중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단지 몇 개의 도시 이름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아시리아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아시리아는 아직 레반트로 확장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9세기 후반에 나올 것이며, 실제로 우리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비문 자료가 부족하여 특히

솔로몬의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은 권력이 솔로몬에게 넘어가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결혼을 통해 이방 민족과 많은 동맹을 맺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일종의 갱스터 스타일의 임종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약성경 이야기의 아이러니 중 하나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들의 가장 큰 우상 숭배자 중 한 명인 지혜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광대한 작은 제국을 가진 이 위대한 군주로 묘사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문 자료를 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고학으로 눈을 돌릴 때, 솔로몬과의 연관성의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10세기에 현장에서 튀어나온 기념비적 건축물의 연관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0세기, 이 자료의 연대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실제로는 10세기의 것인지, 아니면 9세기의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고연대기와 저연대기의 차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직접적인 비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솔로몬의 군주제에 대한 증거로 이해되어 온 기념비적 건축물 중 일부를 연결했습니다. 전통적으로 10세기로 이해되었던 기념비적인 건축물의 폭발, 내부 벽과 외부 벽으로 이루어진 포대 벽이 잔해로 채워지거나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으로 부서졌기 때문에 위대하고 강력한 군주제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광대한 경비탑이 있는 6개의 방이 있는 문, 큰 문이 배치되었을 문지방, 그리고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의 발견으로 고고학 초기에 많은 흥분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특징 도자기 스타일. 여기 비문은 없지만 사실 우리는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에서 솔로몬을 봅니다. 특히 성경에서 솔로몬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장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통적으로 10세기로 이해되어 온 건축물이 9세기와 옴리데스(Omrices) 통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또 다른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0세기에 이르러 큰 건축물은 사라지고 이제 솔로몬은 일종의 부족장인 다윗과 사울의 모습에 더욱 가까웠던 고고학적 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연대기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한편으로는 높은 연대기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낮은 연대기가 있습니다. 이는 두 명의 저명한 고고학자 Ami Mazar와 Israel Finkelstein에 의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논쟁에서 대표되었습니다.

Mazar는 그 이후로 자신의 연대기를 수정된 전통적인 연대기라고 부르는 것으로 약간 바꾸었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이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높은 연대기는 전통적인 틀이며 우리가 보는 기념비적인 건물에 귀속됩니다. 여기서는 가드 타워와 6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문이 있는 하조르의 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벽이 세워졌을 기초와 한쪽으로 나가는 포대 벽입니다. 우리는 또한 전차 전쟁에 기인한 기둥이 있는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마구간인지 창고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적지에 있는 큰 수조와 건축학적으로 표현된 이 기념비적 특성의 한 지표로 여겨지는 주요 수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인 후기 청동기 시대의 일부 브레셋 시대의 일부 재연대를 시작하는 낮은 연대기는 전통적으로 10세기로 이해되었던 10세기 유적을 9세기까지 재해석하고 이를 9세기와 연관시킨다. 옴리데 왕조는 북왕국의 가장 강력한 왕조로, 성경에 묘사되고 고고학적으로 이해되는 대로 남왕국의 대부분을 확실히 지배했습니다. 이 논쟁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C14)입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방법에 대한 논의에서 다양한 오류가 있다는 점입니다.

약 7,500년 정도 됐습니다. 글썄요, 이것이 바로 고연대기와 저연대기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높은 연대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낮은 연대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란히 배치되어 각자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훌륭한 데이터 조합을 갖게 됩니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높은 연대기나 적어도 마자르의 수정된 전통적인 연대기로 기울게 만드는 많은 고고학적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10세기와 9세기로 이해되어 온 건축 단계. 문제 중 하나는 10세기가 지나면서 고고학

자료가 너무 많아서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특정 파괴 층 아래에 속하는 특정 도자기 스타일도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를 시샤크 정복과 연관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그것은 복잡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정복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마을에 와서 내가 보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 저기, 정복된 도시가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지역을 통해 지진이 발생하고 국지적 교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삭 시대에 파괴된 층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파괴 층을 기원전 925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이해되는 시삭의 특정 캠페인에 돌릴 때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c14와 도자기 스타일 모두 데이트와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흥미롭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새로운 발굴 작업도 있었습니다. 다윗 성에 있는 한 곳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에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고고학적 해석으로 인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고학을 그 지역에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해 어느 정도 저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대 정치 논쟁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엘리야트 마자르( Eliyat Mazar )의 발굴에서 고고학적 논쟁을 위한 사료 역할을 했으며, 9세기 이전 시대까지의 도자기를 기반으로 한 연대 측정으로 매우 분명해 보이는 대규모 건축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10세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아키텍처는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합니까? 데이비드인가? 솔로몬인가? 그것은 후기의 행정 건물, 그 기초가 되는 건물인가요? 우리는 이름과 인장 인상에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서 나온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고고학적으로 말해서 소위 다윗의 도시에 큰 건물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매우 흥미로운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사진과 같이 계단식 석조 구조로 지지됩니다. 도시가 기드론 계곡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어진 이 거대한 옹벽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거대한 옹벽을 보면 확실히 그 위에 중요한 건축물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디딤돌 구조의 연대는 다시 한번 추측해 보세요. 토론. 하지만 이 지역에는 이 기간 동안 초기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을 주요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Kirbit 시입니다. Qeiyafa는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10위는 아니더라도 초기 사이트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11위 또는 그 시대 사이의 전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데이트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것은 심지어 계곡까지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정부를 암시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해안 평야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계곡 요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야파는 블레셋의 주요 중심지였던 가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계곡을 통해 앞뒤로 이동하는 밀고 당기기에 대한 이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가드는 아마도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블레셋 중심지였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성경의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 데이터를 최소화하려는 사람들과 그 역사적 데이터를 최대화하려는 사람들 사이의 극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솔로몬의 상황을 살펴볼 때, 우리는 강력한 제국으로서의 솔로몬 제국에 대한 이러한 표현을 성경 자료로부터 도출합니다.

이것은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에돔의 전통적인 지역인 현대의 아라와 계곡에서 새로운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활동의 정점은 11세기와 10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요르단의 파이난 (Fainan)과 홍해 남쪽 끝의 팀나(Timna) 사이 지역에서 대규모 구리 생산에 종사하는 유목민 정치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광범위한 금속 생산을 보여주는 거대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현장, 수십 개의 제련소, 10,000개 이상의 광산에서 100,000톤 이상의 슬래그를 확인했습니다. 이 수갱 중 일부는 깊이가 70미터에 달하는데, 이는 전례가 없으며 로마 시대까지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행동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텐트에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주요 정치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조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나요? 우리는 여전히 화려한 궁전에 왕이 살고 있는 일종의 봉건 체제로서 왕국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씨족 연합의 유목 모델에 대해 더 많이 생각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적 환경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의 강력한 제국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현재 운영 중인 행정 목록이 역사적 지리와 잘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성경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군주 아래 남북이 둘이 아닌 하나의 왕국이었던 시대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맥락을 살펴보면, 그 사이의 땅을 통과하는 무역로의 중요성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방금 이야기한 시바 여왕의 이야기, 아라비아 무역로, 항해 시도에 대한 언급, 와디 피난과 팀나 계곡의 구리 생산 등에 대한 반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매우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언급할 한 쌍의 발견이 될 것입니다.

텔단에서 발견된 텔단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사 비석 중 첫 번째 비석인 텔 단 비석은 다윗의 집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원전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다윗에게서 나온 왕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몇 세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의 가문을 되돌아보면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건축 프로젝트, 기념비적 건축물에 대한 질문에 접근할 때 제가 언급한 디딤돌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초기 이스라엘의 위대한 고고학자 중 한 명인 이갈 야딘(Yigal Yadin)이 열왕기상의 본문을 읽고 이 6개의 방으로 된 문과 건축학적 유사점을 지적하면서 매우 흥분했던 하솔, 므깃도, 게셀의 문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솔로몬이 지었다고 말하는 이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아키텍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고대 연대기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의 기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언급했듯이 이 중 일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발굴 결과 특히 므깃도에서는 그것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반면, 하솔과 같은 다른 발굴에서는 여전히 이 전통적인 이해에 매우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 각각에 대해서는 짐작할 수 있듯이 논쟁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고고학이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전과 궁전을 볼 때, 우리는 다윗 성에서 발견된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디딤돌 구조를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또한 솔로몬 왕의 창고 성들과 병거 성들을 언급하면서 지적했습니다. 원래 그러한 것들은 므깃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곳에는 기둥이 있는 창고나 마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연대기적 논쟁 내에서, 그것들은 서로 다른 고고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연대를 측정합니다. 북왕국이나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으로 특정 왕국을 살펴보면, 우리가 묘사하는 역사와 고대 기록 및 고대 기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역사 사이의 더 명확한 연관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고고학. 따라서 여기서는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북왕국의 기원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르호보암이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솔로몬 밑에서 충실한 관리로 일했던 여로보암 1세가 왕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왕관을 쓴 왕. 나는 중세의 은유를 사용하여 간다.

그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전통적인 이해에 따르면 그는 930년경에 이 북방 왕국의 통치자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남방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단(Dan)과 베텔(Bethel)에 제사 장소를 짓는 것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텔은 많은 사람들이 베텔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베이팀의 어떤 숭배 장소로도 확실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댄에게 우리는 분명히 9세기와 8세기에 광범위한 유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 1세의 이 초기 건축 프로젝트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 10세기의 유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단에 있는 성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볼 때, 서문에서 기원전 853년 카르카르 전투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Omrides의 힘에 대한 많은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무시할 수 없는 국제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높거나 낮은 연대기에 관계없이 Omrides에 기인할 수 있는 광범위한 건축 프로젝트. 예를 들어, 이스라엘 성읍,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대순이 높거나 낮음에 관계없이 므깃도에 광범위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리아 비문에서 이스라엘과 대 아시리아 제국 사이의 갈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또한 메사 비석, 즉 모압 돌의 매우 중요한 비문을 가져와야 할 때, 성경에 알려진 모압 왕 메사에 대해 언급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의 신 가모쉬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흥미진진한 비문을 가져와야 합니다. 성경.

그리고 야훼와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부서진 부분에서도 Tel Dan Stele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집을 언급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므리데에 대한 증언에서 중요한 점은 메사 왕의 비문 서두에서 모압의 관점에서 본 오므리드의

압제, 즉 모압에 대한 오므리드 의 압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는 모압의 트랜스요르단 지역에 대한 오므리데스 의 지배력을 말해줍니다.

오므리 데 왕조는 성경에 나오는 예후의 손에 의해 종말을 맞이하는데, 여기서 예후는 북방 왕 요람뿐 아니라 남방 왕 아하시야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Tel Dan Stele과의 놀라운 연관성을 발견합니다. 이제 텔단 비석은 어떤 왕을 죽인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은 깨졌으나 이스라엘 왕 요람으로 재구성되었고, 또 아하시야라는 이름이 깨졌는데, 그는 그 집의 왕입니다. 데이비드.

이것이 바로 유대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주요 예외를 제외하고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비석은 확실히 아람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닷 신을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사엘의 비석이라고 제안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반드시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후는 아람 세력과 협력하여 행동했을 수 있으며 하사엘은 그 두 번의 암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고학 기록과 성경에서 발견한 것 사이에는 뿌리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후는 살만에셀 3세의 검은 오벨리스크에도 유명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일부 사람들도 살만에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고 하여 이스라엘 왕의 그림을 얻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으며 이는 사르곤 2세의 기록에서도 확인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신아시리아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카르카르 전투로 돌아가면 아합은 853년에 살만에셀 3세를 막을 수 있었지만 840년대에 예후는 이미 아시리아 세력에 항복하고 있었고 매년 원정을 할 때마다 아시리아는 더 나아가서 점점 더 나아가 마침내 사마리아 함락에 성공합니다. 사마리아의 파괴에 대한 광범위한 고고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의 고고학은 매우 복잡하기는 하지만 건축물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와 성서에는 이것이 북쪽 왕국의 종말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쪽 유다 왕국으로 눈을 돌려 이 다윗의 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유다로 알려지지 않은 특이한 현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다윗의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족 왕조의 가문인 아람 가문도 가지고 있으며, 아탈리아를 제외하고 성경에 나오는 왕 계통의 제시에 있는 계통의 모든 왕은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다윗 가문에 속합니다. 그래서 북쪽보다 작고 약해요.

비교 건축과 정착 패턴을 기반으로 이를 고고학적으로, 논쟁을 제쳐두고 식별합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의 묘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약간 뒤로 가져가거나 본문에 없는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제의적 중요성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북방과 이스라엘과 남방의 국가신이신 여호와와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국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높이 평가되고, 북쪽 왕국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따라서 이야기는 722, 721년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남방 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 중 하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실제로 다름 아닌 왕 자신의 인장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히스기야 왕의 왕실 인상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상황에서 현장에서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검증된 유물 시장에 몇 년 전에 있었던 또 다른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인장을 받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는 또한 기원전 701년에 남부 레반트 땅을 통해 캠페인을 벌였던 신아시리아 통치자인 산헤립의 산헤립 비문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 직전에 있는 여호와와 사자가 유다를 앗수르의 손에서 구원한 극적인 이야기를 열왕기서와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아시리아 기록을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의 캠페인인지 아니면 두 개의 캠페인인지에 대한 토론과 토론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함께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가 와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유다 사람 히스기야를 가두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를 새장 속의 새처럼 가두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는 아마르나 시대부터 흔히 볼 수 있는 문학적 모티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도시를 파괴하고 그를 사로잡는 대신에 그를 그의 왕도에 가두었습니다.

따라서 그 전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산헤립의 비문과 성경의 묘사 사이에는 세부적인 수준에서도 놀라운 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헤립은 히스기야에게서 조공으로 금 30달란트와 은 800달란트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산헤립의 말대로 금 30달란트를 주었는데 은 300달란트를 바쳤다고 합니다. 주어진. 그래서 매우 밀접한 서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공격을 준비했다는 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리아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배후지에서 수도로 들어오는 일종의 경제적 공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왕을 위한 라멜렉 항아리 로 알려진 특정 형태의 표시 항아리, 저장 항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터널을 파고 있는데, 이것은 기혼 샘물을 더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연적인 균열로 확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성벽이 없던 서쪽 언덕을 둘러싸기 위해 넓은 성벽이라고 알려진 것을 건설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앗시리아의 침입 직전에 북쪽에서 도망친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 예루살렘의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여러 가지 지표를 제시합니다. 아마도 가장 분명한 연관성은 산헤립의 가장 큰 승리였던 라기스 유적지의 고고학에 있을 것이다.

그는 수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라기스를 이긴 것을 가장 자랑합니다. 우리는 라기스 도시를 보여주는 정교한 궁전 부조와 비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탑과 경사로가 있었던 실제 고고학, 라기스의 파괴, 산헤립 앞으로 끌려온 포로들의 행렬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맞는 것들과 이러한 연관성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고고학과 성경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세부 사항 중 일부는 일대일로 설명되지 않지만 성경과 고고학 데이터의 융합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해 지적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성서와 자료 기록에 히스기야 시대와 그 뒤를 이은 요시아 시대에 서기관 활동이 증가했다는 암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많은 성경 작품이 작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지혜의 말을 모으는 잠언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북쪽 자매 이스라엘보다 오래 지속되었으며, 그 기간에 우리는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하는 신아시리아 제국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네오아시리아 제국이 특정 아슈르바니팔 아래 전성기에 이르렀고 이집트에서 아나톨리아 가장자리, 바다와 메소포타미아 전역까지 확장했다는 오싹한 역사 사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전성기 동안은 그들의 왕국의 종말이기도 하므로 우리는 Ashurbanipal이 언제 통치를 마쳤는지 정확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는 이 격동의 시기에 우리는 이집트를 혼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여러 세력이 있지만 결국에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장악하고 그들이 아시리아 왕국을 상속받습니다. 그들은 외교 정책에 대해 다른 관점을 행사하고, 지방의 역학에 투자하기보다는 파괴에 더 가깝고 모든 것을 수도로 가져옵니다. 그러나 결국 성전을 포함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파괴한 것은 느부갓네살 2세 치하의 바빌로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597년에 첫 번째 물결에서 시작되었고 마침내 기원전 587년이나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바빌로니아 연대기에 597년의 첫 번째 침입에 대해 기록했으며 바빌론에서도 배급 목록과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바빌론에 거주하고 머물렀던 유다 사람들의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이 기간의 기록 보관소에 이름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의는 이스라엘 왕국의 초기부터 유다와 이스라엘의 평행 역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간략하게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를 볼 때 항상 엘리트, 왕, 대제국의 움직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 즉 사회구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또한 고대 이스라엘의 존재에 중요한 부분이었던 다양한 음식 방식과 종교를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상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전통의 많은 부분을 계승한 사람들입니다.

고고학과 구약성서에 관해 강의하는 조나단 그리어 박사(Dr. Jonathan Greer)입니다. 세션 4, 히브리 왕국입니다.